

서울은 힘이 세다

김현영

“그럼 안양댁이네?”

내 옆에 앉아 있던 선배는 대뜸 그렇게 말했다. 대학에 합격한 후 처음으로 선배들과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서였다. 선배는 처음엔 내 나이를 물었다. 그리고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두 번째로 이어진 질문은 바로 사는 곳이 어디냐는 것이었다. 안양이요라고 나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대꾸했다. 안양은 그 당시 나의 거주지이자 나의 고향이기도 했다. 안양이라고 대답을 하는 건 숨을 쉬는 것만큼 자연스런 일이었다. 그러나 내 옆에 앉아 있던 선배의 반응은 생경하기 짝이 없었다. 안양댁이라니,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이었다. 내가 태어나고 자랐던 그곳에서는 누구도 그런 식으로 나를 호명하지는 않았으니까. 내 옆에 앉아있던, 그 날 처음 본 선배의 얼굴이 점점 낯설게 느껴졌다. 상견례의 취지가 영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.

나는 애매모호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. 이제 곧 안양댁이라는 촌부의 역할을 맡아야만 하는데 나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. 안양댁이라는 말엔 분명히 안양은 촌이고 고로 안양에 사는 나는 촌사람이라는 뜻이 들어 있었으니까.

“안양댁……맞잖아?”

내 표정이 뭔가 명쾌해 보이지 않자 선배는 이윽고 확인 사살을 시도했다.

“아, 예…….”

그리고 나는 명중되었다.

선배의 말이 순 억지였다면 차라리 좋았을 것이다. 내가 가벼운 농담조차 받아들이지 못해 일일이 따지고 들 정도로 지겹게 진지한 인간이었다면 오히려 더 좋았을 것이다. 하지만 그 선배는 절대로 악의를 가지고 그 말을 한 게 아니었다. 나 또한 진지함 따위와는 친해지지 않으려고 껍이나 애쓰는 인간이었다. 진지한 것은 전혀 쿨하지 않은 태도였으니까. 요즘 세상에 진지해봤

자 촌스럽다는 소리밖에 듣지 못할 테니까. 늘 쿨한 인간을 지향했던 내가 단지 안양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촌부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게 아이러니라면 아이러니였다. 아무튼 결코 좋은 기분은 아니었다. 그렇다고 해서 기분이 좋지 않을 만한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. 모든 게 다 맞지만, 그래서 무어라 대꾸할 수는 없지만, 그러므로, 그래서, 더더욱 잘못됐는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을 할 뿐이었다.

“저기 재는 부산댁이고 저기 저 애는 인천댁이야. 그리고 재는…….”

선배는 자신의 동기들을 눈에 띄는 대로 손으로 짚어가며 내게 일러주었다. 하나같이 이름은 없고 무슨무슨 댁들뿐이었다. 다들 그런 건 아니었다. 이름이 있는 사람도 물론 있었다. 무슨무슨 댁으로 불릴 이유가 없는 유일한 사람. 그들은 바로 수도 서울에 사는 사람들 이었다.

나는 그제야 줄곧 안양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양댁으로 불리는 걸 내가 낯설어했던 이유를 깨달았다. 상견례 행사가 벌어지고 있던 그곳은 안양이 아니라 서울이었다. 안양에 있을 때 나는 외지인이 아니었지만 서울의 나는 외지인일 수밖에 없었다. 게다가 대학이란 지금까지 내가 다녔던 학교들—같은 지역 아이들끼리만 함께 다녔던—과는 달리 전국 각지의 학생들이 모여드는 곳이었다. 서울은 필수였다.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였으며, 수도는 곧 1등 도시였다. 1등 도시에 사는 시민들은 당연히 1등 시민이었다. 서울 못지않은 도시에 살아도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슨무슨 댁이 될 수밖에 없었다. 바로 집 앞에서 버스를 타고 20분이면 강남에 갈 수 있다고 해도 나는 안양댁일 뿐이었다. 나의 거주지는 곧 나의 신분이었다. 그리고 불행하게도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이름보다 훨씬 힘이 센 어떤 것이었다.

나는 상견례 장소로 가면서 보았던 지저분한 동네들, 조금도 살고 싶지 않게 만드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떠올렸다. 그곳도 서울이었다. 내 눈에는 조금도 특별하게 보이지 않았던, 특별시 서울이었다. 상견례 장소로 갈 때까지만 해도 왜 저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나는 그러나 안양댁으로 불린 그 순간부터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었다. 사는 환경이야 어떻든 서울이라는 이름만으로도 그곳은 이미 지성소라는 걸.

서울 나들이가 점점 잦아지면서 나는 그곳이 왜 특별시일 수밖에 없는지를 매일매일 느껴야만 했다. 모든 공연과 전시회는 언제나 서울에서 열렸다. 특별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곳도 서울뿐이었다. 지리상 안양에서 훨씬 가까운 지방을 내려갈 때도 나는 꼭 번거롭게 서울을 거쳐야만 했다. 지방으로 가는 가장 빠른 교통편은 오직 서울에만 있었다. 안양시장은 한 도시의 시장일 뿐이지만, 서울시장은 부통령이라고들 했다. 부동산 가격만 해도 서울과 안양은 게임이 안 났다. 물질만능시대, 부동산 가격은 신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. 같은 돈이면 안양에서 좀 더 쾌적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사코 서울시민이 되려하는지,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왜 하나같이 상실감에 시달리는지, 지방의 우수한 학생들이 왜 비싼 생활비를 들여가며 한사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려하는지……. 나는 다 이해할 수 있었다. 대학의 서열이란 꼭 그 대학의 수준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었다. 단지 서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그 대학은 높은 서열을 차지할 수 있는, 그런 구조였던 것이다.

이런저런 모임이 있을 때 사람들은 안양에 사는 내가 서울로 올라오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. 심지어는 내가 한턱 쏘러 갈 때조차도 상경을 해야 한다. 인원수로 보아 나 한 명 고생하는 게 경제적이니까. 그들은 내가 가는 건 쉬운 일이지만 자신들이 내려오는 건 어

렵다고 생각한다. 하지만 나에게 불편한 일이 어떻게 남에게는 쉬운 일일 수 있단 말인가.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이 있듯 억울하면 내가 서울로 이사하면 될 것이다.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서울에서 살고 싶은 게 아니다. 나는 서울 위주로만 돌아가는 이 시스템이 뭔가 불합리하지 않느냐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.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은 이토록 불평등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협박과 다르지 않다.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나 행동 속에 우리의 무기력이, 굴복이……. 그대로 녹아있다. 왜 우리는 서울 위주의 시스템을 당연하게 여기는 걸까.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는 공평한 기회를 만나고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.

이 드넓은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곳이 지구뿐이라면 그건 공간의 낭비일 것이다. 중심과 주변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곳, 모두가 중심인 그 곳에서 민주주의는 비로소 만개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.



김현영
73년 경기 안양 출생.
명지대 문예창작과 졸업.
창작집 <냉장고>, 테마소설집 <독신>